

#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표 1〉 임금 동향 및 근로시간 지표(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시간, 2010=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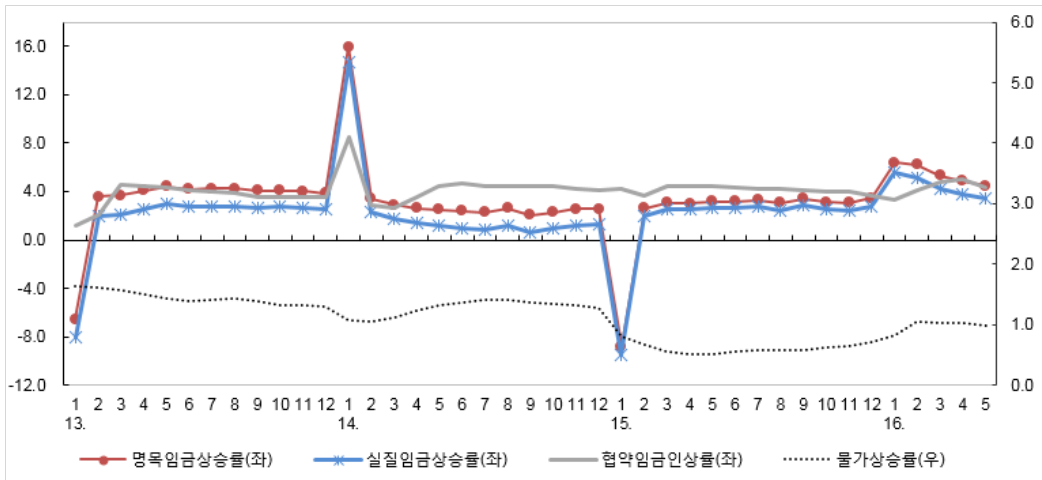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 (명목임금상승률)	3,111 (3.9)	3,190 (2.5)	3,300 (3.5)	3,246 (3.2)	3,045 (3.8)	3,391 (4.5)	3,133 (2.9)	
	상용 근로 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429 (2.8)	3,219 (3.4)	3,582 (4.4)	3,313 (2.9)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718 (2.9)	2,723 (2.9)	2,817 (3.6)	2,804 (3.0)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14 (9.8)	234 (9.8)	223 (4.1)	235 (0.6)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496 (-0.2)	263 (4.1)	542 (9.2)	273 (4.1)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10 (0.8)	1,399 (1.0)	1,438 (2.0)	1,431 (2.3)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0 (1.3)	109.8 (0.7)	109.5 (0.5)	109.8 (0.5)	110.6 (1.0)	110.7 (0.8)	
	실질임금상승률	2.5	1.3	2.7	2.6	3.2	3.4	2.1	
	협약임금인상률	3.5	4.1	3.7	4.4	-	4.3	-	
	근로 시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2.6 (0.7)	168.6 (-1.4)	158.6 (-3.7)	168.7 (0.1)	169.9 (7.1)
상용 근로 자		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8.4 (0.7)	174.1 (-1.5)	164.0 (-3.9)	174.2 (0.1)	176.2 (7.4)
		소정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5.6 (0.9)	161.1 (-1.7)	150 (-4.3)	161.6 (0.3)	162.9 (8.6)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3.2)	12.8 (-0.8)	13.0 (0.8)	14.1 (2.2)	12.7 (-2.3)	13.3 (-5.7)
비상용근로시간		122.5 (0.2)	117.0 (-4.5)	114.6 (-2.1)	112.9 (-3.9)	106.7 (-5.7)	112.1 (-0.7)	110.2 (3.3)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며, 1~5월 평균은 누계평균값임.

2) 초과급여는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1] 명목임금상승률·실질임금상승률·협약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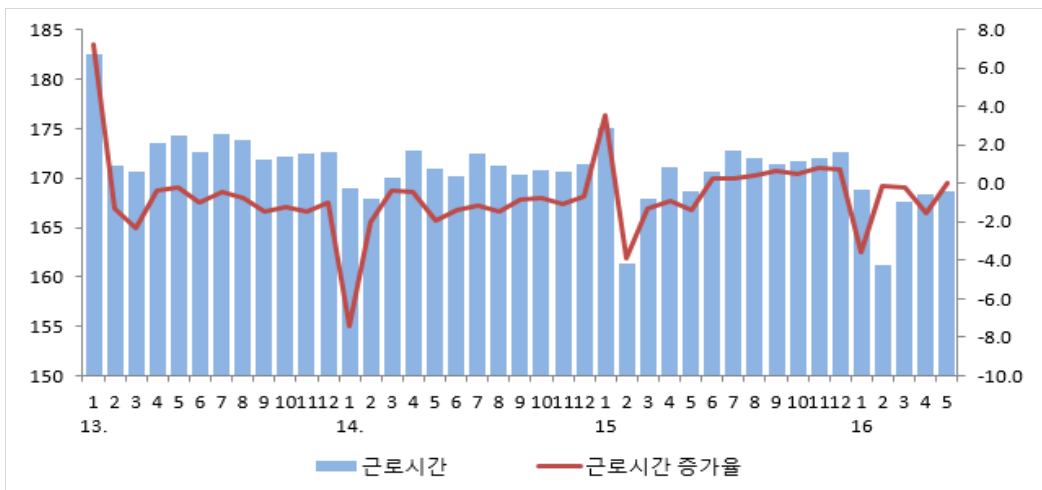


주: 1) 명목, 실질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기준 누계평균임.  
 2) 협약임금인상률(누계평균)이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그림 2] 근로시간(증가율) 추이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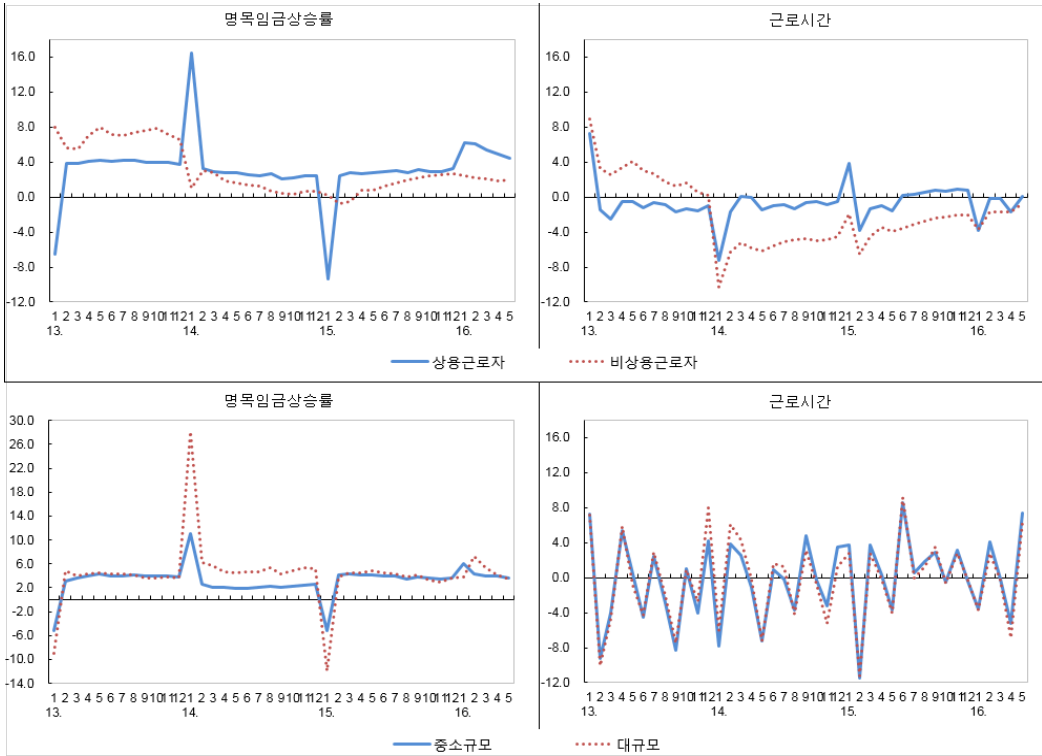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기준 누계평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6년 5월 명목임금상승률·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둔화
  - 2016년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133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2.9%)은 정액급여증가율이 소폭 확대된 반면, 초과급여 증가율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둔화. 임시·일용근로자는 2.3%로 임금상승률 확대
  - 명목임금에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폭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에 그침
  
- ◎ 2016년 1~5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각각 4.5%, 3.4%로 전년동월대비 확대
  - 1~5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한 4.5%
  - 상용근로자(4.4%↑), 비상용근로자(2.0%↑) 모두 상승폭 확대.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정액급여의 상승폭 확대와 특별급여의 플러스 전환에 기인
  
- ◎ 2016년 6월 협약임금인상률은 4.1%
  -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으며, 임금결정진도율(34.4%)은 전년동월에 비해 더디게 진행
  
- ◎ 2016년 5월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9.9시간(전년동월대비 7.1%↑)
  -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1.3시간 증가함.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4일 증가한 영향이 큼(18.8일 → 20.2일)
  - 상용근로자 총근로시간은 176.2시간(7.4%↑, 초과근로시간 5.7%↓), 비상용근로자 총근로시간은 1110.2시간(3.3%↑)
  
- ◎ 2016년 1~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8.7시간(전년동월대비 0.1%↑)
  - 월평균 근로일수는 20일로 전년동월평균과 차이가 없음
  -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2시간(0.1%↑, 초과근로시간 2.3%↓),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12.1시간(0.7%↓)임

[그림 3] 명목임금상승률과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상용·비상용, 중소규모·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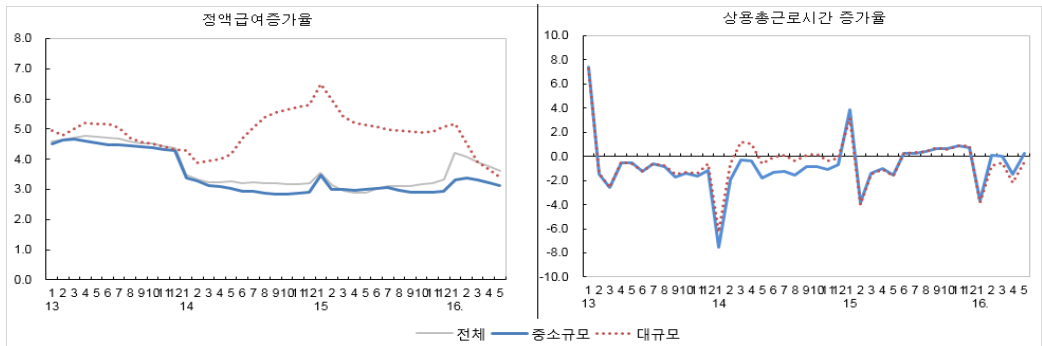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기준 누계평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과 상용총근로시간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누계평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종사상 지위별(1~5월 평균) 임금상승률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최근 몇 년간 2~3% 내외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부터 2개월 연속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월까지 전년동평균대비 1.6%p 상승한 4.4%로 나타남. 이는 3%대에서 담보상태를 보였던 정액급여가 4%대로 상승한 것과 더불어 특별급여의 증가에 기인
  - 이와 더불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 또한 전년동평균대비 2.0% 상승
  - 한편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15년 6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년대비 0.7% 상승. 2016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예년처럼 전년동평균 기저효과 영향으로 변동이 컸으며, 5월까지 전년동평균대비 0.1% 증가
  
- ◎ 사업체 규모별(1~5월 평균) 임금상승률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7%, 3.4%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둔화
  - 임금상승을 견인하는 임금 세부내역이 사업체 규모별 차이를 보임. 먼저 정액급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정액급여증가율은 소폭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정액급여증가율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소기업의 특별급여증가율은 예년 수준인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증가율은 크게 확대됨
  - 2016년 들어 대규모 사업체의 초과급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특별급여증가율은 산업별로 편차가 큼. 부동산업 및 임대업(144.4%), 예술·스포츠 등(8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7%), 도소매업(33.9%) 등 대부분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전년동평균대비 감소. 제조업 또한 전년동평균대비 13.7% 상승(2015년 -6.0%)
  - 대규모 사업체에서 초과급여 감소폭이 컸던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임
  -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은 169.5시간(0.3%↑), 대규모 사업체는 165.5시간(0.3%↓).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초과근로시간은

14.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1.7% 감소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초과  
급여 또한 전년동평균대비 5.6% 감소

- ◎ 중소기업의 상대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의 60.2 수준
  - 전체 임금근로자 : 60.5(2014년 1~5월) → 60.0(2015년 1~5월) → 60.2(2016년 1~5월)
  - 상용근로자 : 62.3(2014년 1~5월) → 61.5(2015년 1~5월) → 61.6(2016년 1~5월)
  -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 77.5(2014년 1~5월) → 76.0(2015년 1~5월) → 75.7(2016년 1~5월)
  
- ◎ 산업별(1~5월 평균) 임금상승률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 임금은 전 산업에서 상승한 가운데 근로시간의 증감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임
  - 먼저 임금을 보면,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6%)의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7%대의 임금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제조업 또한 평균 임금상승률을 상회한 5.1%를 기록
  - 월평균 근로일수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7%), 교육서비스업(-2.2%), 음식숙박업(-1.9%), 도매 및 소매업(-0.4%), 제조업(-0.2%), 금융 및 보험업(-0.1%)에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함
  -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189.3시간인 반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으로 145.0시간임

〈부표 1〉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과 근로시간(1~5월 평균)

(단위: 천 원, 시간, %)

		2014년 1~5월 평균		2015년 1~5월 평균		2016년 1~5월 평균		
임금	전체	전체 임금총액	3,147	(2.5)	3,246	(3.2)	3,391	(4.5)
		상용임금총액	3,335	(2.7)	3,429	(2.8)	3,582	(4.4)
		상용정액급여	2,642	(3.3)	2,718	(2.9)	2,817	(3.6)
		상용초과급여	195	(8.6)	214	(9.8)	223	(4.1)
		상용특별급여	497	(-2.0)	496	(-0.2)	542	(9.2)
		임시일용임금총액	1,399	(1.6)	1,410	(0.8)	1,438	(2.0)
	중소규모	전체 임금총액	2,778	(1.9)	2,891	(4.1)	2,998	(3.7)
		상용임금총액	2,949	(2.1)	3,058	(3.7)	3,170	(3.7)
		상용정액급여	2,487	(3.0)	2,561	(3.0)	2,641	(3.1)
		상용초과급여	167	(6.4)	180	(8.2)	193	(7.3)
		상용특별급여	296	(-7.0)	316	(6.8)	336	(6.3)
		임시일용임금총액	1,406	(1.0)	1,415	(0.6)	1,452	(2.6)
	대규모	전체 임금총액	4,590	(4.5)	4,815	(4.9)	4,980	(3.4)
		상용임금총액	4,731	(4.6)	4,969	(5.0)	5,145	(3.5)
		상용정액급여	3,207	(4.2)	3,372	(5.1)	3,487	(3.4)
		상용초과급여	300	(13.9)	356	(18.9)	336	(-5.6)
		상용특별급여	1,224	(3.7)	1,241	(1.4)	1,322	(6.5)
		임시일용임금총액	1,327	(9.8)	1,362	(2.6)	1,310	(-3.8)
근로시간	전체	전체 근로시간	171.0	(-1.0)	168.6	(-1.4)	168.7	(0.1)
		상용총근로시간	176.8	(-0.8)	174.1	(-1.5)	174.2	(0.1)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3.9	(-1.1)	161.1	(-1.7)	161.6	(0.3)
		상용초과근로시간	12.9	(2.4)	13.0	(0.8)	12.7	(-2.3)
		임시일용근로시간	117.5	(-1.0)	112.9	(-3.9)	112.1	(-0.7)
		중소규모	전체 근로시간	171.4	(-0.9)	169.0	(-1.4)	169.5
	상용총근로시간	177.9	(-0.8)	175.1	(-1.6)	175.6	(0.3)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8	(-1.0)	162.9	(-1.7)	163.4	(0.3)	
	상용초과근로시간	12.2	(2.5)	12.2	(0.0)	12.2	(0.0)	
	임시일용근로시간	119.2	(-0.6)	115.2	(-3.4)	114.8	(-0.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	(-1.2)	166.5	(-1.9)	165.5	(-0.6)
		상용총근로시간	172.7	(-1.0)	169.9	(-1.6)	169.1	(-0.5)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57.3	(-1.3)	153.7	(-2.3)	154.8	(0.7)
		상용초과근로시간	15.5	(2.0)	16.2	(4.5)	14.3	(-11.7)
		임시일용근로시간	99.7	(-5.3)	89.4	(-10.3)	86.4	(-3.4)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기준 명목임금과 근로시간임.

2) 1~5월 누계평균값임. ( )안은 전년동평균대비 상승률.

3) 초과급여는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표 2〉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1~5월 평균)

(단위: 천 원, 시간, %)

	2015년 1~5월 평균		2016년 1~5월 평균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전 산업	3,246 (3.2)	168.6 (-1.4)	3,391 (4.5)	168.7 (0.1)
광업	3,513 (3.3)	175.5 (-2.0)	3,669 (4.4)	175.7 (0.1)
제조업	3,569 (2.7)	182.5 (-1.8)	3,751 (5.1)	182.1 (-0.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38 (3.2)	168.6 (-0.9)	5,652 (5.9)	164.0 (-2.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859 (4.0)	172.3 (-3.0)	3,010 (5.3)	174.9 (1.5)
건설업	2,592 (4.7)	144.2 (-3.0)	2,687 (3.7)	145.0 (0.6)
도매 및 소매업	3,228 (2.7)	169.2 (-1.5)	3,395 (5.2)	168.6 (-0.4)
운수업	2,831 (5.9)	170.4 (-1.3)	3,006 (6.2)	170.5 (0.1)
음식숙박업	1,807 (3.6)	173.4 (-0.2)	1,864 (3.1)	170.1 (-1.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91 (3.0)	159.6 (-1.8)	4,161 (4.3)	160.0 (0.3)
금융 및 보험업	5,563 (6.3)	160.1 (-2.2)	5,804 (4.3)	160.0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42 (6.4)	188.5 (-0.3)	2,557 (4.7)	189.3 (0.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90 (-0.4)	159.9 (-1.8)	4,590 (7.0)	160.6 (0.4)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74 (4.1)	168.6 (-1.7)	2,022 (2.4)	168.6 (0.0)
교육서비스업	3,486 (3.6)	148.6 (-2.9)	3,554 (1.9)	145.3 (-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60 (5.8)	166.7 (-1.0)	2,816 (2.0)	167.0 (0.2)
여가관련 서비스업	2,401 (1.5)	156.4 (-1.1)	2,568 (7.0)	156.6 (0.1)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27 (1.5)	159.5 (-1.8)	2,396 (7.6)	160.6 (0.7)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기준 명목임금과 근로시간임.

2) 1~5월 누계평균값임. ( )안은 전년동평균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